화살

1960년 7월 하반호 (130)

해방의 은인에게 감사를 드린다

박 승히 그림

3 APR 11 1961
Copy

조쏘 친선 만세!

늘어만 간다

신 홍순

남 동무는 색이 날마다 달라지는군요. 치마 색갈이 말입니다. 어'저녁에 극장에 갈 땐 검은 색 뉴똥 치마를 입었더니 오늘은 파란색 베르벳도.

녀 그거야 있는 것 가지고 자주 갈아 입는데 뭐 잘못 된 게 있나요? 살림이 느니 의복도 늘고 의복이 느니 이것 저것 번갈아 입는 거죠 뭐.

남 참 늘어가는 이야기가 났으니 말이지 그 동안 우리 나라에 모든 것이 얼마나 많이 늘었습니까? 자 공장이 늘구 광산이 늘구…

녀 아니 그 동안 는 걸 다 꼽을 작정이예요? 며칠을 두고도 못다 꼽을텐데

남 그걸 이루 다 어떻게 꼽겠습니까? 그저 중요한 것만 대충… 자 우선 발전소가 느니 전력이 풍부해지구요. 용광로가 느니 뒤'집 돌돌 아버지가 쏟아지지 않습니까?

녀 뭐요? 뒤'집 돌돌 아버지요?

남 그 분 이름을 모르시우?

녀 왜 몰라요. 강 선철이지요.

남 그러게 말이예요. 강철 선철이 막 쏟아진다 그 말입니다.

녀 예 강철 선철.

남 철이 쏟아지니 기계 공장이 늘구 기계 공장이 느니 덕천에서는 빵이 두 개씩 나오구요.

녀 빵이 두 개요?

남 빵빵하구 자동차가 나와요.

녀 예. 덕천서 만드는 화물 자동차 말이죠?

남 그 뿐인가요? 각종 기겐들 얼마나 많이 늘었습니까? 선반기며 볼반 쎄빠, 프레스, 타닝반 같은 공작 기겐 그만두고라도 농촌에서 쓰는 뜨락또르를 비롯해서 파종기, 제초기 탈곡기 절단기 분쇄기, 양수기 그래서 고조기…

녀 아니 고조기는 어떤 기겐가요?

남 그래서 오늘과 같은 고조기에 이르렀다 그 말입니다. 자 그리구 방직 공장이 느니 마치가 꺼꾸로 나오죠

녀 뭐요? 천이 안나오고 마치가 꺼꾸로 나와요?

남 마치를 꺼꾸로 붙이면 치마가 아뇨.

녀 예. 그러니까 치마감이 나온단 말이죠?

해방자

허 능택 그림

남 이젠 돌루 옷을 해 입는 판인데 말할 게 있나요?

녀 돌루다요? 원 참

남 아니 비날론두 모루시우?

녀 예. 참 비날론은 돌에서 실을 뽑아 내죠.

남 이젠 년산 1억 8천만 메터의 질기고 탁탁하고 모양 있고 값 눅은 고급 양복지가 막 쏟아집니다.

녀 세계에서 처음 만드는 비날론!

남 그리구 화학 비료가 느니 알곡이 늘구 게다가 저수지며 양수장 관개 시설이 느니 억년 흉작을 모르는 풍요한 지대로 전변되였지요.

녀 그 뿐인가요? 가축은 늘어 고기에 우유 계란 끼니마다 밥상에는 영양가 높고 맛 있는 반찬이 늘구요.

남 문화의 전당인 극장이며 구락부 영화관이 늘구

녀 곳곳마다 유치원 직장마다 탁아소가 느니 귀여운 꽃봉오리들이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지요.

남 휴양소며 정양소가 느니 마음껏 즐기며 휴식할 수가 있구요

녀 누구나 다 공부할 수 있는 의무 교육제에 병 나면 무상 치료제

남 그러니 이게 지상 락원이 아니구 뭡니까?

녀 이게 다 당과 김 일성 수상님의 현명한 지도의 결과이지요.

남 헌데 저 남반부에도 늘긴 는게 있더군요

녀 아니 미제 강점 아래 지금 썩은 냄새 밖엔 풍기는 게 없는데 늘긴 뭐가 늘었단 말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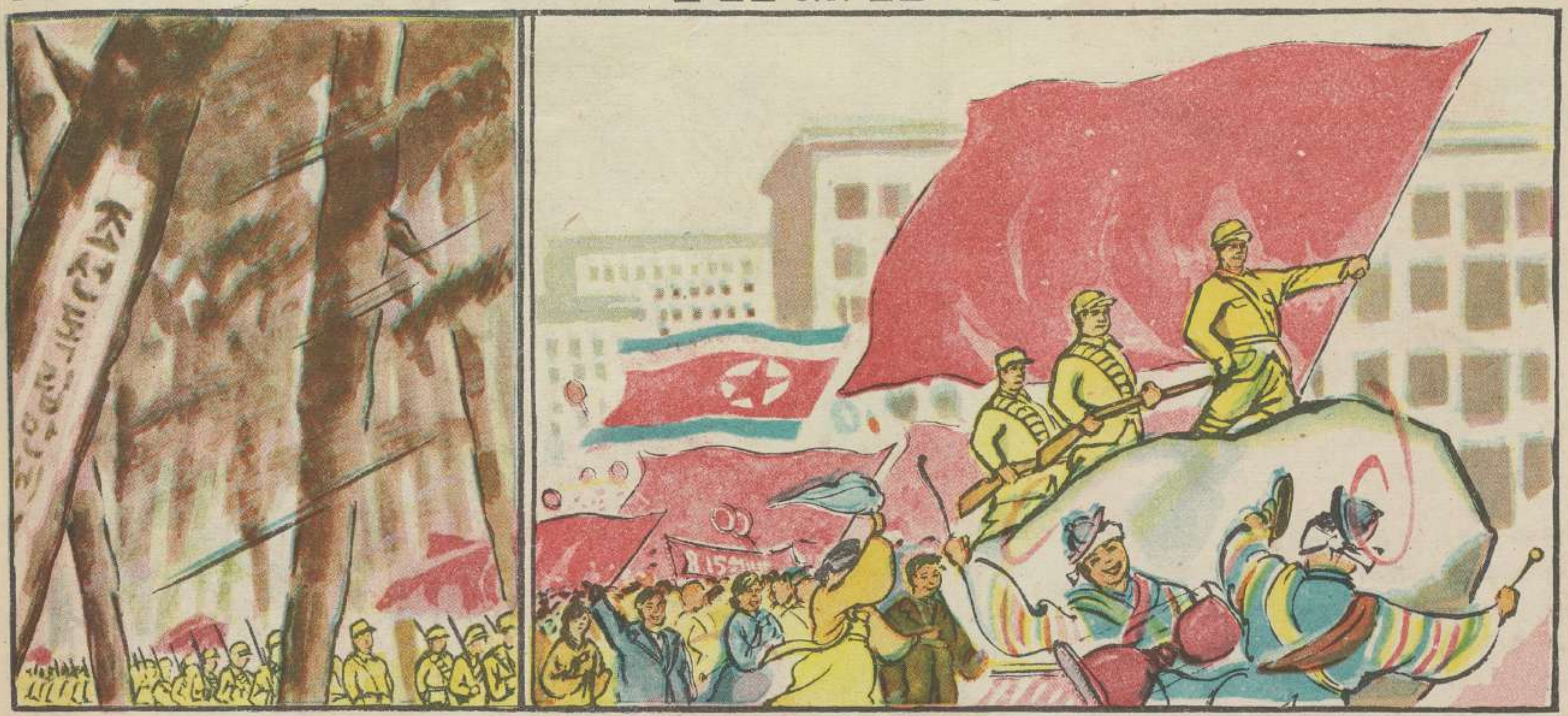
남 우선 기지가 늘었죠

녀 기지요? 양복 기지, 외투 기지

남 미국놈들의 군사 기지요.

홍 종호 그림

그 길을 이어 받은 대오



녀 예 군사 기지! 그 놈들이야 전쟁 밖에 모르니깐

남 그리구 경을 치는 경찰서 형틀에 매다는 형무소가 늘구

녀 무고한 인민들을 검거 투옥하는…

남 그리구 금이 늘죠.

녀 금광에서 금을 캔단 말인가요?

남 금광이면 좋기나 하게요? 수백 가지 세금에 학교에는 입학금, 잡부금 걸핏하면 벌금

녀 흥 잘 긁어 들인다!

남 시장에 미국 상품이 느니 자살자가 늘구요.

녀 미국 상품이 느는데 자살은 왜 해요?

남 자 미국 상품이 범람하니 민족 산업의 파탄으로 공장 문을 닫게 되거든요. 공장 문이 닫기니 일자리를 빼앗긴 실업자가 생기죠.

녀 예 660만의 실업자, 반 실업자.

남 그러니 처 자식 거느리고 먹고 살아 갈 수가 없어 목을 매고 독약을 마시고 강물에 몸을 던지고…

녀 가엾어라! 그리구 농촌엔 절량 농가가 늘구 보따리 걸머지고 고향을 떠나는 리농가가 늘구요.

남 그 반면에 뭐이 또 느는구 허니 술집이 늘고 다방이 늘고 빠, 캬바레 땐스홀이 늘고 매춘부 양갈보, 사창굴 도박장,아편굴 이따우만 늘어가죠.

녀 그러기에 암흑 천지라는 게 아닙니까.

남 이게 다 미국놈들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새 제도 새 정치 새 생활을 요구하는 파업이 늘어 가고 시위 폭동이 늘고 미국놈 내쫓자는 반미 기세가 날에 날마다 늘어만 가구 있죠.

녀 그러니까 우리 북반부는 락원이구요.

남 저 남반부는 죽엄의 땅 생지옥이란 말입니다.

수도 건설자들의 명절 선물

홍 종호 그림

八·一五 해방 一五주년 만세!

초대소에서 왔은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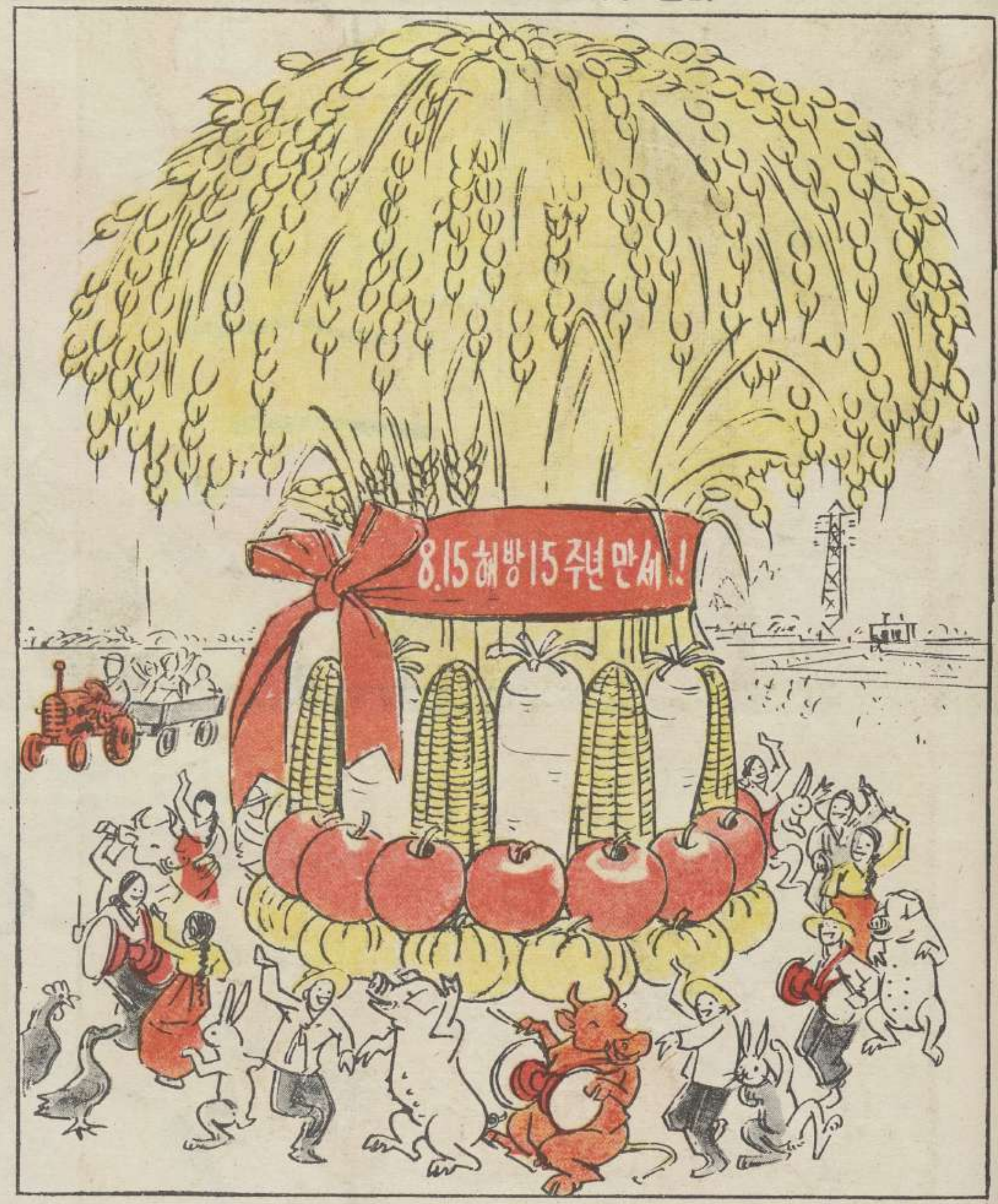
금방 귀국하여 초대소에 머물고 있는 귀국한 한 녀인이 몹시 아픈 기색을 하고 있었다. 그때 안내원이 와서 친절하게
《아프세요? 병원으로 가십시다.》
《싫어요 일 없어요.》
《이제 차를 불러 올테니 잠간만 기다리세요》
5분도 못되여 안내원이 다시 돌아와
《빨리 나오세요! 차가 기다리고 있어요》
《아니 난 안가겠어요, 난 갈 수 없어요》
《그럼 저에게 업히세요, 차까지만 업혀 가면 돼요》
《약 값과 입원 치료비는 하루에 얼마나 되나요?》
《약 값이나 입원 치료비는 하나두 안물어도 돼요. 우리 나라에선 모두 무료예요》
《반년 동안이나 입원하는데두요?》
《안심하세요. 1년이구 2년이구 무료예요》
안내원은 그 녀자를 들쳐 업으려 했다.
《그럼 전 걸어 가겠어요》
《념려 마세요. 차가 다 와 있어요》
《전 차값까지 낼 돈은…》
《그래 그러세요?! 걱정 마세요, 차로 태워 가는 것도 무료랍니다!》
그러나 귀국한 녀자는 아직 완전히 믿어지지 않은채 입원했다.
(오늘은 돈을 내라고 하겠지)
퇴원하는 날 그 녀자는 이렇게 생각하며 기다렸으나 병원문을 나서도록 아무 말이 없었다. 그래서 퇴원하는 녀자에게 물었다.
《그래 아주머니네도 돈을 안물었소?》
《아주머닌 물었어요?》
《글쎄 저 보곤 돈 내란 말을 안하기에 혹…》
《돈을 내야 치료를 받는 일은 우리 나라 력사에서 영영 없어진지가 오래답니다》
《에이구 참 좋은 세상이군! 남조선이나 일본하군 아주 딴판이구먼!》

△ 차'간에서의 대화

차'간에서 옆에 앉은 손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귀국한 사람은 그에게 물었다.
《무슨 일을 하십니까?》
《건설 로동잡니다.》
그런즉 귀국한 사람은 무엇인가 생각하더니

(5 페지로 계속)

풍요한 우리 농촌 얼시구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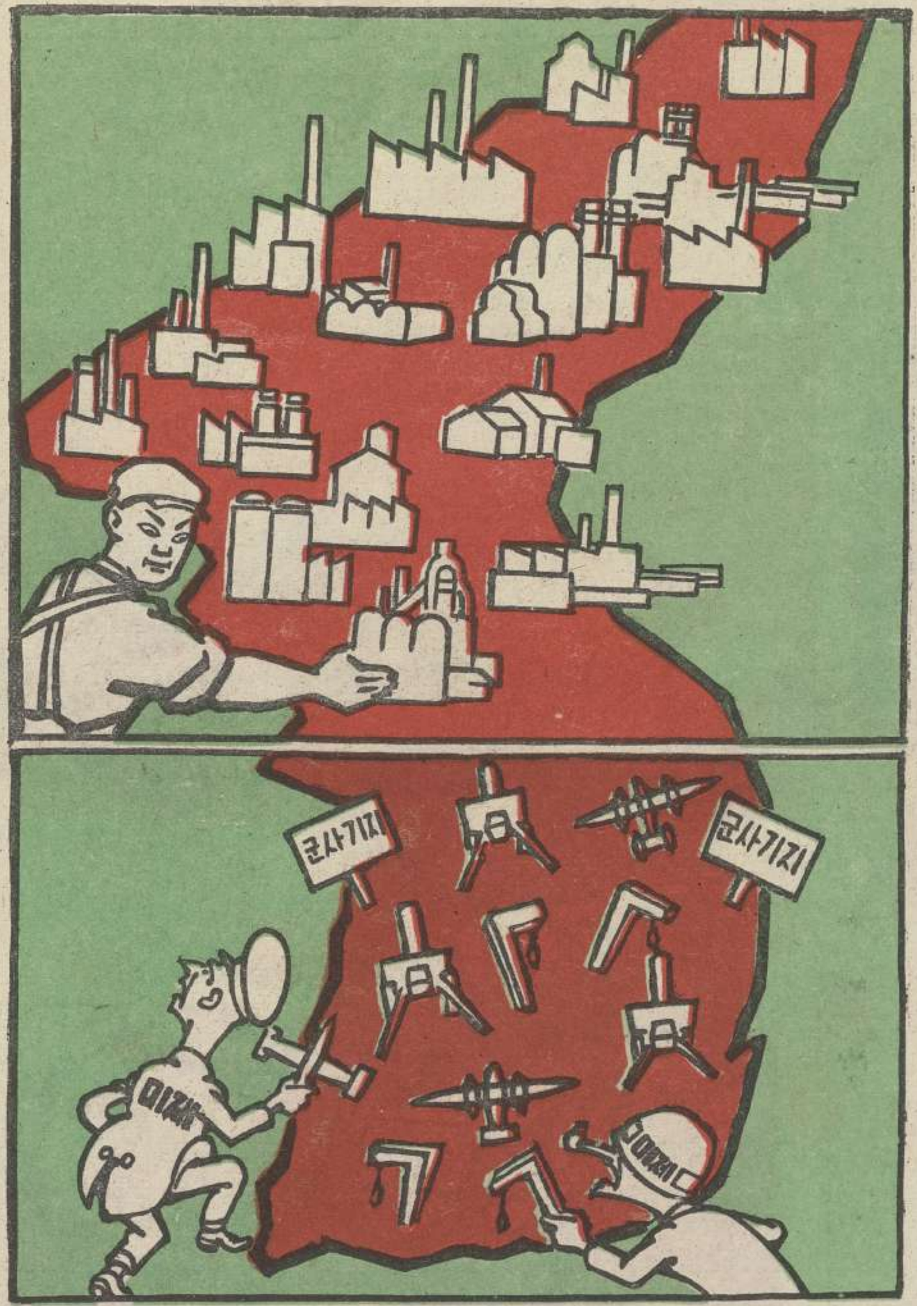


안 창수 그림

힘의 원천

송 용남 그림

두 기지



최 영근 그림

몰라서 물어 봤고 알아서 쓰게 되였다

조 명식 그림

(4 페지로부터 계속)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시나요?》
《일하는 사람은 저 혼잡니다.》
《혼자요? 혼자 벌어서 다섯 학생이나 공부시켜요?》
《왜 놀라십니까, 내가 봉급과 상금을 적지 않이 타 오는데다 큰 아이들 둘이 또 돈을 타 오거든요》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면서 어떻게 돈을 타 와요? 짬짬이 무슨 일을 하는가요?》
《아닙니다. 대학에서 장학금을 내주지요》
《아니 수업료두 교과서 값두 안받는데다 돈까지 주면서 공부시켜요?!》
《믿어지지 않습니까?》
《남조선에서나 일본에선 돈을 그렇게 많이 내고도 학교에 다닐 수 없는데 여기선 돈을 주면서 공부를 시킨다니 말이우다》
《놀랄게 없습니다. 거긴 자본가와 지주의 나라지만 우리 나라는 우리 근로자들의 나라니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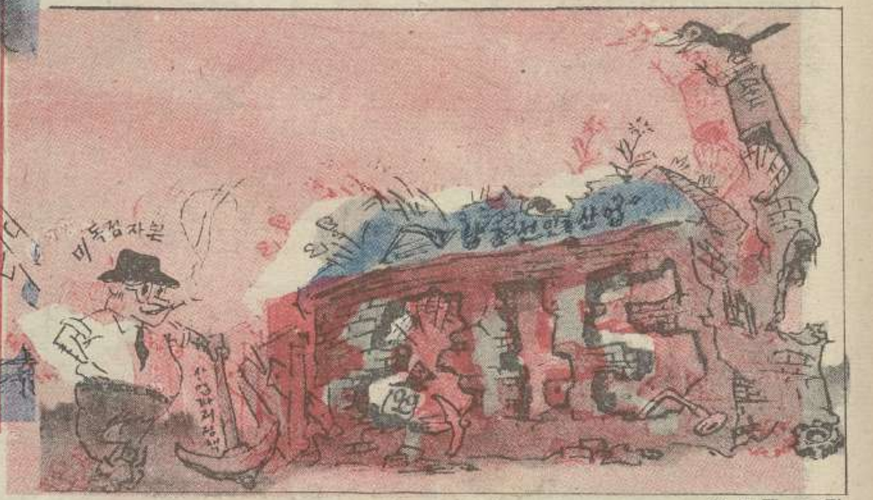
《예술가》

귀국한 한 사람이 공원에서 한 남자를 불렀다.
《배우 선생! 배우 선생!》
그러나 그 사람은 대답이 없다. 귀국한 사람은 그의 앞에 가서 불렀다.
《배우 선생!》
《저는 배우가 아닙니다》
《아니 전 방금 이 극장에서 선생이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걸 들었는데요?》
《그렇지만 전 배우가 아닙니다. 로동잡니다.》
《솔직한 자기 신분을 아리켜 주십시요. 어느 극장에 계시는지요 좀…》
《믿어지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디에 가도 저와 같은 사람을 무수히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이튿날 그 귀국한 사람은 한 공장을 구경하게 되였다.
《아니 저게 어제 그 사람이 아닙니까. 극장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하던…》
《그 사람입니다》 지배인은 대답했다.
《그 사람이 왜 여기 와서 일합니까?》
《저 사람은 원래 여기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아니 로동자 동무가 정말 그렇게 잘 연주했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사람이 우리 공장에만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손님이 믿어지지 않아 하는 것도 리해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나 남조선에선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니까요. 그러나 우리 나라에선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아서 기이한 현상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국가에서 그들의 문화 휴식과 재질의 발전을 위해서 악기도 보장해 주고 지도자도 파견해 주고 무엇이나 다 보장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 공장에서만두 벌써 네 사람이 극장으로 갔습니다.》
《로동자들이 모두 예술가라!…정말 천국 같은 세상이군!》

리 운봉

판이한 두 장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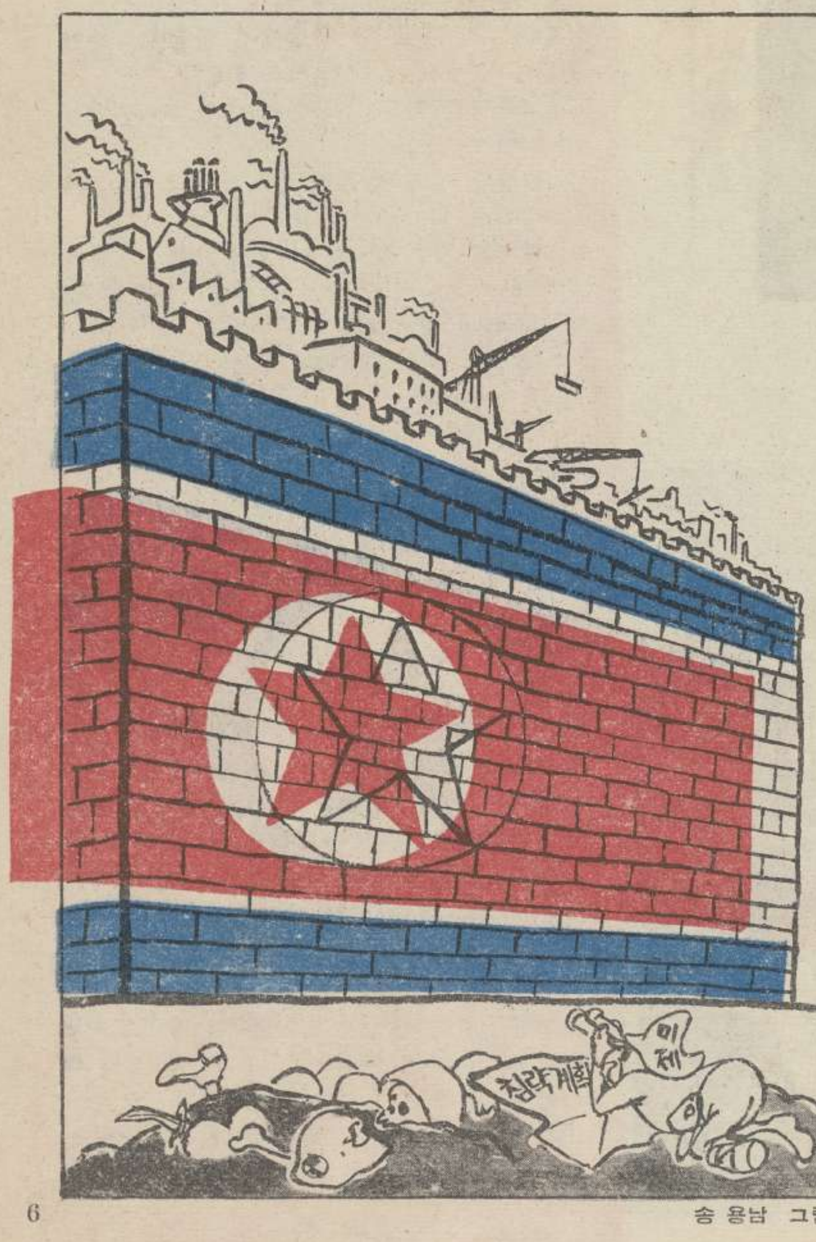
북반부



남반부

백 인균 그림

강력한 성새



송 용남 그림

제거되여야 할 장애물

안 창수 그림

형제국가들로부터

조선 인민의 민족적 명절 8.15 해방 15주년에 제하여 쏘련을 비롯한 우방 국가 만화 잡지사들로 부터 보내온 만화 작품들을 이에 게재 한다

쏘련 "끄로꼬질" 만화 잡지사 보리스· 레오 그림

리 승만의 최근 거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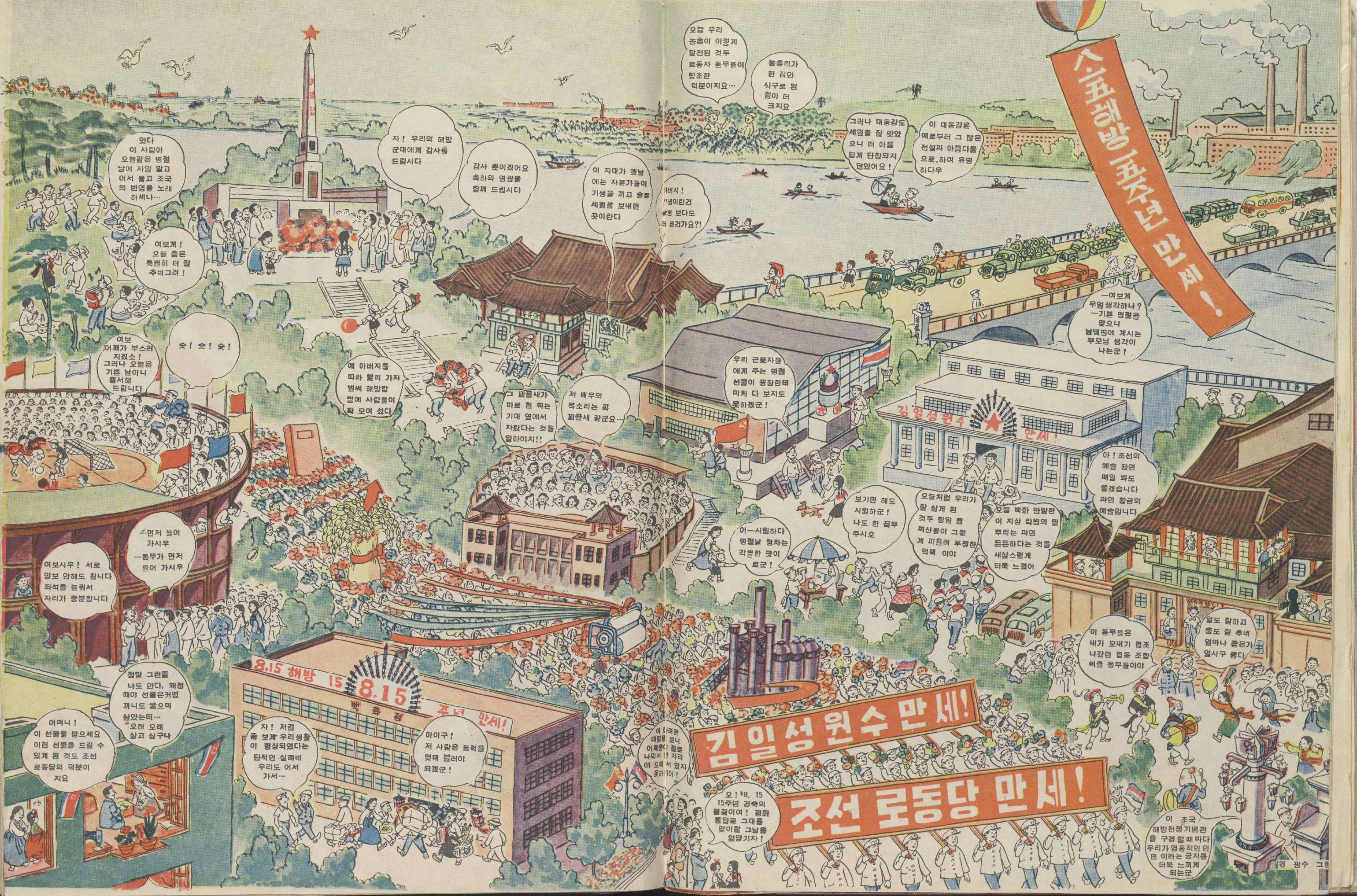
중국 "만화" 잡지사 라 원명 그림

계속 달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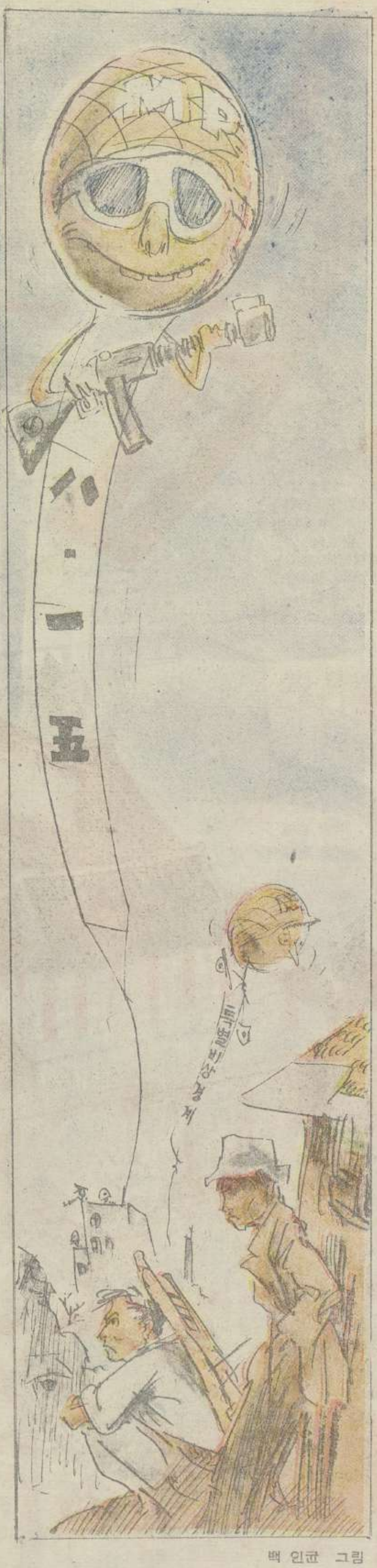
루마니아 "우르지카" 만화 잡지사 브 • 그리바트 그림

"우르지카"는 충심으로 부터 당신들을 축하 한다

민주 독일 "오일렌스피겔" 만화 잡지사 호• 스크라디 그림


왔다 이 사람아 오늘같은 명절 날에 사양 말고 어서 돌고 조국 의 번영을 노래 하세나…
여보게! 오늘 춤은 특별히 더 잘 추네그려!
자! 우리의 해방 군대에게 감사를 드립시다
감사 뿐이겠어요 축하와 영광을 함께 드립시다
이 지대가 옛날 에는 자본가들이 기생을 끼고 술로 세월을 보내던 곳이란다
버지! 생이란건 병 보다도 더 큰건가요?!
오늘 우리 농촌이 이렇게 발전된 것두 로동자 동무들이 방조한 덕분이지요…
농촌리가 한 집안 식구로 됨 힘이 더 크지요
그러나 대동강도 세월을 잘 맞았 으니 더 아름 답게 단장되지 않았어요!
이 대동강은 예로부터 그 많은 전설과 아름다움 으로 하여 유명 하다우
八·一五해방 一五주년 만세!
—여보게 무얼생각하나? —기쁜 명절을 맞으니 남녘땅에 계시는 부모님 생각이 나는군!
여보 어깨가 부스러 지겠소! 그러나 오늘은 기쁜 날이니 용서해 드립니다
숏! 숏! 숏!
얘 아버지를 따라 빨리 가자 벌써 해방탑 밑에 사람들이 꽉 모여 섰다
그 꾀꼴새가 바로 천 짜는 기대 옆에서 자랐다는 것을 알아야지!!
저 배우의 목소리는 꼭 꾀꼴새 같군요…
우리 근로자들 에게 주는 명절 선물이 굉장한테 미처 다 보지도 못하겠군!
김일성원수 만세!
아! 조선의 예술 공연 매일 봐도 좋겠습니다 과연 황금의 예술입니다
보기만 해도 시원하군! 나도 한 곱뿌 주시오
어—시원하다 명절날 청차는 각별한 맛이 로군!
오늘처럼 우리가 잘 살게 된 것두 항일 빨 찌산들이 그렇 게 피흘려 투쟁한 덕택 이야
오늘 백화 만발한 이 지상 락원의 밑 뿌리는 과연 든든하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더욱 느꼈어
—먼저 들어 가시우 —동무가 먼저 들어 가시우
여보시우! 서로 양보 안해도 됩니다 좌석을 늘궈서 자리가 충분합니다
정말 그런줄 나도 안다, 왜정 때야 선물은커녕 끼니도 굶으며 살았는데… 오래 오래 살고 싶구나
어머니! 이 선물을 받으세요 이런 선물을 드릴 수 있게 된 것도 조선 로동당의 덕분이 지요
8.15 해방 15 8.15 주년 만세!
백화점
자! 저걸 좀 보게 우리생활 이 향상되였다는 단적인 실례네 우리도 어서 가서…
아이구! 저 사람은 트럭을 몇대 불러야 되겠군!
이 화려한 대렬을 보니 어깨춤이 절로 나와서 한 자리 에 오래 서 있지 못하겠어!
김일성원수 만세!
조선 로동당 만세!
오! 8. 15 15주년 경축의 물결이여! 평화 통일로 그대를 맞이할 그날을 앞당기자!
이 동무들은 내가 모내기 협조 나갔던 협동 조합 써클 동무들이야
일도 잘하고 춤도 잘 추네 얼마나 좋은가 얼시구 좋다
이 조국 해방전쟁기념관 을 구경할 때마다 우리가 영웅적인 인 민 이라는 긍지를 더욱 느끼게 되는군
원 광수 그림

남조선의 명절 풍경



백 인균 그림

누구를 위한 《질서》냐?

오 홍태

박 수근 농민은 오늘도 온종일 산을 헤매였다. 밭과 논김매기에 한시가 새로운 이때에 산을 헤맨다는 것은 한심한 일이였다. 허나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당장 먹어야 했으니 풀도 뜯고 나무껍질도 벗겨야 했다. 농사철에 일을 못하고 산을 헤맨다는 것만 보아도 올해 농사도 건어 들일 것이란 별로 없으리라는 것은 뻔한 일이였다.

장리쌀파 곱배기를 벌써 닷말이나 먹었으니 가을에 열말은 달아날 것이고 여기에 수세, 수득세, 아직도 밀린 상환곡 이런 저런 것을 합치면 또 추수 마당에서 빈 손을 털고 나 앉아야 했다.

극성스럽게 일을 해서 소출을 다문 얼마간이라도 더 낸다면 한달치 계량이라도 보텔 수 있으련만 당장 먹지 못하니 일할 기운이 없는 것이다.

《제길할, 언제까지나 이 모양으로 산담… 풀뿌리를 캐고 나무껍질을 벗겨도 먹어야 힘을 쓰지 원》

둥'곬을 축축히 흐르는 땀을 훔치면서 혼자 중얼거리는 말이다. 이때다.

《나무껍질을 벗기는게 어느 놈이냐?!》

등 뒤에서 이런 호통 소리가 들려 왔다. 리 승만이 꺼꾸러지는 바람에 요 얼마간은 죽은체 하고 집에 박혀 있던 지주놈이 또 싸대기 시작한 것이다.

박 수근 농민은 지주의 포악스러운 호통을 들으면서 나무껍질을 또 벗기기 시작하였다.

지주놈이 헐레벌떡거리며 다가 왔다.

《령감 도대체 누구 산인데 맘대루 싸대며 나무껍질을 벗겨? 엉》

호통을 치는 품이 흡사 돼지 멱 따는 소리다. 새로 온 경찰 지서장놈하고 며칠째 술판을 벌려 놓더니 기운을 얻은 모양이다.

《당신은 누구요?》

지주의 아래 우를 훑어 보면 박 수근 농민은 이렇게 되물었다.

《아니 환장을 했나. 그래 최 지주를 모른단 말이냐》

《굶어 죽게 된 백성이 나무껍질을 좀 벗기는데 게사니를 잡아 먹은 사람처럼 왜 꽥꽥거리는거요》

《이건 누굴 믿구 배'장이야, 남의 산판에 들어와 호통질이냐, 경찰이 다 죽은 줄 알어》

《호통은 누가 치우, 리 승만 때 버릇대루 경찰을 등에 대구 호통이요》

《4월 혁명이 승리했는데 꺼꾸러진 리 승만은 왜 끄집어 내여 엉》

지주는 제법 자기들이 리 승만을 쫓아낸 것처럼 호령이다.

《뭐요 4월 혁명이라구. 그래 우리에게 쌀 한되박 줬단 말이요?》

《이런 무식하재라구 4월 혁명이라는 게 쌀 주는 전줄 아나 엉》

최 지주의 호통 바람에 산에서 나무껍질을 벗기던 농민들이 한두 사람씩 모여 들기 시작하였다. 당황해 난 지주는 기가 꺾이기 시작하고 말씨부터 달라졌다.

《여봐 4월 혁명이 승리했으니 이제는 질서를 지켜야지. 모든 것을 참아야 한단 말이야》

당장 끼니를 굶는 사람 보고는 참으라고 호통치고 자기들은 배를 불리는 것이 4월 혁명 이후의 과도 정부 두목들이다. 그러면서 허 정 일당은 바로 리 승만과 꼭 같은 소리로 《내핍 생활》을 하라고 찌버리고 있는 것이다.

한 농민이 성큼 앞에 나섰다.

《지주 나리, 질서를 지키라구요? 누구를 위한 질서를 말하는 거요.우리 백성들은 당장의 먹을 것이 없어 이 모양으로 나무껍질을 벗기며 다니오. 헌데 지주 나리의 창고에서는 우리가 지은 쌀이 썩어 가고 있소. 소작파 고리대로 당신의 배를 불려 주는 질서를 우리에게 또 지키라는 거요? 당신이 말하는 4월 혁명이라는 게 그런거요. 이번에는 우리 질서를 찾아야겠소》

《뭐이? 어떻게들 하겠다는 거냐》

최 지주는 황겁히 소리를 질렀다.

《우리두 살아야 할 게 아니유 경찰이구 뭐구 하는 것들이 또 당신과 한속으로 우리를 못살게 구니 우리는 우리 힘 밖에 믿을 게 없소》

농민은 침착히 사리를 따졌다.

《뭐뭐 폭동을 일쿠겠단 말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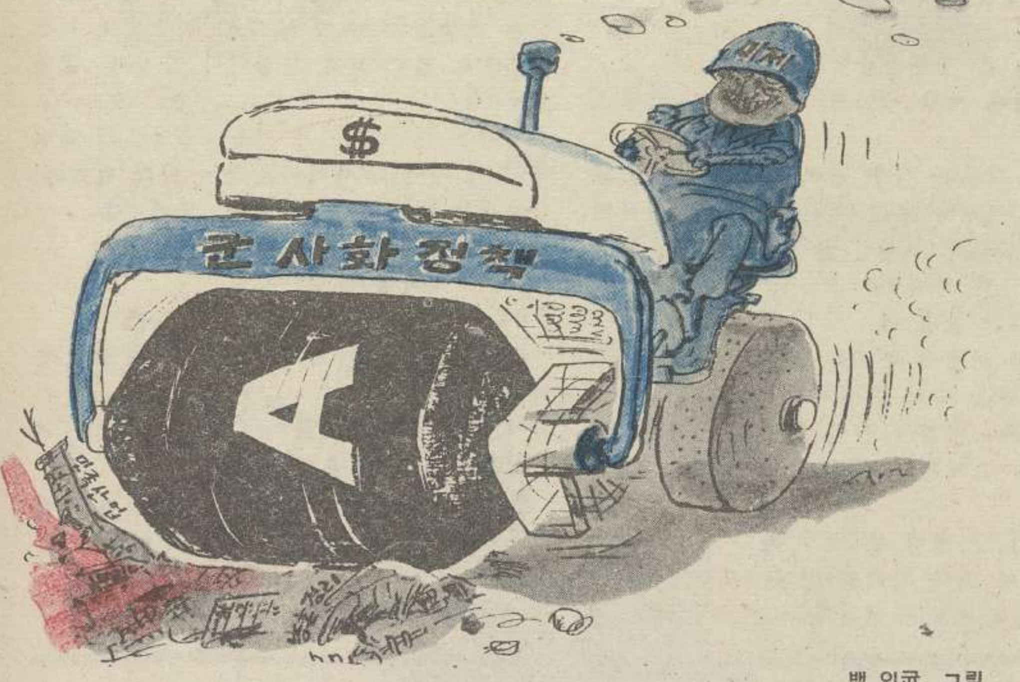
《흥 당신이 말하는 4월 혁명 때두 리 승만이 꺼꾸러지는 날까지 인민들의 봉기를 폭동이라 했소. 자아— 여러 분! 우리가 지은 쌀이 저 최 지주놈의 창고에 쌓여 있소. 창고를 털라!》

와— 하고 농민들의 기세가 올랐다. 농민들은.지주놈을 앞세우고 산을 내려 갔다.

미제의 8.15 선물

백 인균 그림

파괴자



백 인균 그림

《4천년래의 민생고》

송 시엽 그림

원시인—왜 우리가 살던 때보다 더 못살고 있소?
—저 미국 강도놈들 때문이라오

실물 교육

조 명식 그림

—얘야! 여기 쓴게 무슨 말이냐?

………

—구사일생이란 바로 이런 경우를 말하는 것이야

양키 문화의 소용돌이

조 명식 그림

《회람 각의》와 《회람판》

서 창훈

인민들의 항의의 목소리에 견디지 못하여 일본 총리 대신 기시는 교활하게 《일미 안전 조약》의 《비준》을 《회람 각의》의 방법에 의거했다. 그는 이 문서를 문서 련락판으로 하여금 각 대신의 저택으로 돌아 다니면서, 서명을 받게끔 했다.

문서 련락판을 보낸 후 기시는 잠들 수 없었다. 그의 눈 앞에는 해거티가 헤리콥터의 사다리에 매여 달려서

《기시 이놈, 날 이꼴로 만들려고 오라구 했지, 이놈》

하는 표독스러운 소리에 기시는 소스라쳐 깨여 나서 이마의 땀을 씻었다.

그러나 주름잡힌 그의 눈가죽은 잠에 압도되여 스르르 닫히였다.

이번엔 태평양 상공에 떠 있는 대형 군용 비행기에 타고 도망치는 날도깨비 같은 아이젠하워가 나타나서 표독스럽게 대들었다.

《기시 노부스께 이놈아, 내 낯짝에 침을 뱉게 한 것도 네놈의 탓이지 앙?》

이 소리에 눈을 뜬 기시의 눈알은 성난 수퇘지 눈보다 더 피'기가 돌았다.

기시는 또 잠시 눈을 감았으나 580만 명의 총파업이 있은 밤, 자기가 겪은 무시무시한 장면이 눈앞에 떠올랐다.

기시는 그만 소스라쳐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서 공포에 질린 우리안의 너구리처럼 방안을 빙빙 돌아 가다가 문을 활짝 열고 소리쳤다.

《게 누가 없냐?》

내각 관방 장관 시이나가 헐레벌떡 달려왔다.

《각하, 좀 주무셨습니까?》

《이 판에 자긴 어떻게 자, 근데 어떻게 됐소》

《회람 각의는 아주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께다 통신 대신 각하를 비롯하여 모든 대신들의 서명이 끝나게 됩니다. 로동 대신 한분만 하면…》

기시의 얼굴엔 미소가 감돌았다.

이때에 밖에서 다투는 소리가 들려 왔다.

《회람판을 총리 대신에게…》

《나가라,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떠드는 소리를 듣고 있던 기시는 명령했다.

《시이나군 빨리 좀 나가 봐!》

(드디여 회람 각의가 끝난 모양이군 흥, 내 편에 네놈들이 넘어가구 말았지)

기시는 《일미 안전 보장 조약》을 각의에 통과시킨 것이 유쾌해져서 이렇게 중얼거렸다.

《근데 밖으로 나간 시이나군이 아직도 들어 오지 않을까?》

기시는 방문을 열었다.

이 순간 시이나와 낯선 사나이가 서로 밀치닥거리며 뛰여 들어 왔다.

《야, 이놈 못들어 간대두》

《뭐 어째? 난 꼭 기시를 만나야겠다》

기시 방으로 들어 온 낯선 자는 들고 온 나무판을 기시의 코 앞에 쑥 내 밀었다.

《기시 노부스께군, 이 회람판에 서명해야겠소, 당신이 사직을 하든지 이사를 가든지 무슨 대책을 취해 주오, 당신 이웃집에 사는 〈덕〉으로 벌써 달포 이상이나 잠자지 못했으니…》

기시는 이 사나이와 아웅다웅하는데 경관이 들어 와서 그 사나이를 끌고 나가 버렸다.

기시는 한숨을 푹 쉬였다. 밖에서는

《기시는 즉시 사임하라!》

《기시 내각을 타도하자!》

《일미 안전 보장 조약은 무효다!》

《미군은 검은 비행기를 가지고 제굴로 돌아 가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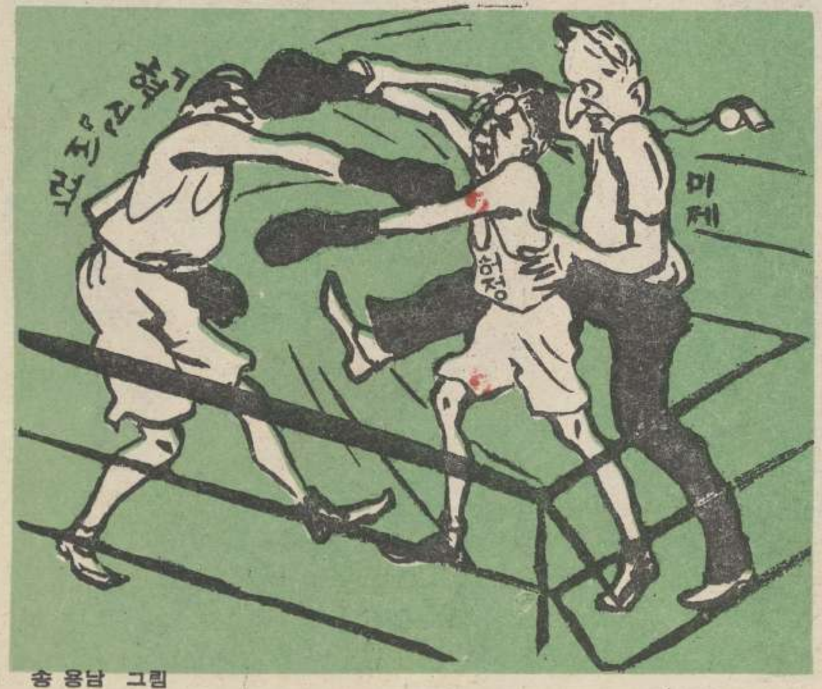
기시 관저를 포위한 인민들의 항쟁의 목소리는 천지를 진동시켰다.

눈알이 시뻘건 기시는 어리둥절하여 비틀비틀하다가 의자에 풀석 주저 앉으면서 중얼거렸다.

(사표를 내지 않고는 못배겨 내겠군)

미제와 허 정 일당은 대두하는 혁신 세력을 탄압하기 위하여 혈안이 되고 있다.

미국식 권투



 송 용남 그림

어미 개의 특별 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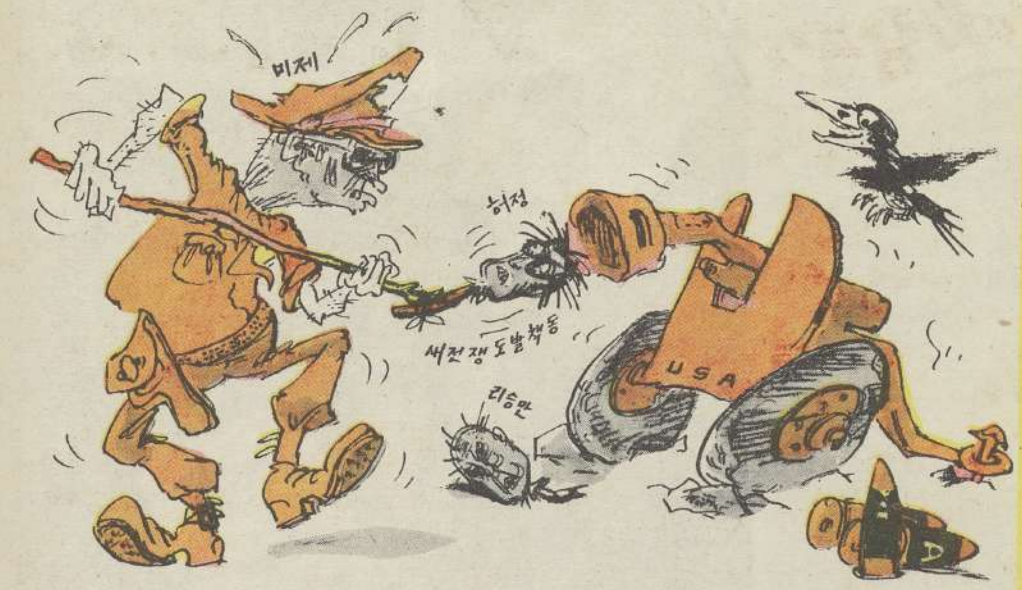
아이젠하워 행정부는 허 정 일당이 감행하고 있는 인민 탄압을 직접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더 많은 미국 경찰 고문을 남조선에 파견하였다. 미제는 〈한국 경찰의 조직과 그 훈련 방법에 대하여 조언을 주는 미국 경찰 전문가〉들에게 17만 6천 딸라를 또 다시 할당하였다.

백 인균 그림

—용기를 내서 미국 개답게 행동하란 말야!

부질 없는 소동

미제 침략자들은 남조선에서 긴장 상태를 격화시키기 위하여 계속 군사 소동을 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미제 침략자들은 그 어떠한 발악적 도발 책동으로도 이미 기울어진 그들의 운명을 구원할 수 없다.



백 인균 그림

흡혈귀의 론리

미제의 주구 허 정 도당은 〈4천년래의 민생고〉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남조선 인민들에게 〈내핍 생활〉 이외에는 다른 도리가 없다고 운운하면서 자기들의 략탈 정책을 계속 강화할 것을 획책하고 있다.

개판은 개판이다

박 승히 그림 맥코노이—허 정씨!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발양된 것 매우 매우 기쁘게 생각하오

올챙이 승만 《제씨들》의 《신파》

피 호주

밤도 아닌 백주, 서울 한 복판에서
올챙이 승만 《제씨들》이 《신파》를 한다.
워싱톤의 호각에 발 맞추어
《개통령》이 쓰던 때 묻은 《선거법》에
《자유》, 《공정 선거》의 글'자만 덧붙쳐서··

피로써 얻은 남녘 땅 형제들의 열매를,
어루만지며 《선거》로써 따먹으려 든다.
《공탁금》, 재산, 년령, 거주 등으로,
《선거법》에 전호와 철조망으로 막아 놓았으니
어찌 근로 대중이 통과할 수 있으랴?

더우기 《자유 분위기 보장》의 미명하에
《선거구》로 《경찰 기동대》,《검찰 기동대》,
《자유의 사도》들이 파견되나니
총칼과 테로가 《자유》를 지키랴?
만약 승냥이가 고기를 지킨다면 몰라?

그래도 아메리카는 못믿어워
《선거 감시》를 떠벌이면서,
송장인 《유엔 한국 통일 부흥 위원단》을
《선거 시찰》로 파견한다니
삶은 소대가리가 웃을 노릇이로군.

허나, 뿌리채 뒤흔들리는 《한국 통치 기구》에
원자탄을 멘 《총독》이 발악한다.
가슴에 십자를 그으며 비명을 올린다.
—오오, 하느님 마옵소서!
이번 선거 실패되면 제 목이……—

오! 항쟁의 남녘 땅이여!
때려부셔라! 미제의 통치 기구를,
폭로하라! 기만 《선거》를,
양키 승냥이가 도사리고 있는한
그 어떤 《선거》의 국을 끓여도,
그대들에 차례질 아무 것도 없다.

개나발

미제 졸개 허 정은 쫓겨난 리 승만 역도가 발광을 부리면서 떠들던 《재일 교포 북송 저지》 소동을 그대로 되풀이함으로써 매국노로서의 정체를 드러내 놓고있다.

안 창수 그림

새로운 선거법

최 영근 그림

—나의 저서가 알기 힘 들면 이것대로 하시오 더 명료하오

종말이 다가 왔다

 송 용남 그림

정정 : 활살 7월 상반호 9 페지의 그림 〈먹은 땅을 내 놓아라!〉의 설명문 중 〈보사〉를 〈보상〉으로 정정함.

로철

이 병력서는 하와이에 살고 있는 몇몇 진보적인 의사들이 미제의 두목 아이젠하워가 2 기 《력사적인》극동 행각에서 각처 인민들로부터 두들겨 맞을대로 두들겨 맞고 겨우 하와이 섬으로 빠져나와서 숨을 돌리고 있던 때인 1960년 6월 22일에 작성한 것이다.

병 력 서

성명. 드와이트. 다이드. 아이젠하워

성별. 남자 　　　년령. 69 세

주소. 아메리카 워싱톤 백악관

직장. 직위 및 재산 정도. 미국 대통령 겸 제네라르. 모터스 회사 리사회 리사, 캬나벨라 농장주 (이외에 약 14 개 주식 회사, 상사 및 은행에 주권을 가지고 있음.) 현 저금액은 약 2억 7천만 딸라(이외에 아들 존. 아이젠하워의 명의로 약 9천 800만 딸라의 동산 및 부동산을 가지고 있음).

진단 내용

1. 내과의 진단 :

—혈액에 혹사병균을 보유하고 있음. 이는 시시각각으로 선량한 사람들의 평화로운 생활에 악영향을 주고 있음으로 지체없이 격리시키고 엄격히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봄.

—심장이 급격히 작아졌으며 간장이 콩알만하게 줄어 들었음. 《극동 친선 방문》 기간 분노한 인민들의 압력에 봉착한 결과에 발생된 병증이라고 진단됨. 절대 안정이 필요함.(환자는 《군비 확장》, 《국부 전쟁 도발》 등 방법에 의하여 종종 이를 치료한 경험이 있다고 우겨 대고 있으나 이는 불피코 더욱더 큰 인민들의 분노를 일으켜서 결국 그러한 병증을 일층 격화시키는 이외에 아무러한 좋은 결과도 가져 오지 못한 것은 물론, 이제는 완전히 습성화되여 이러한 치료 방법이 더는 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인정됨)

2. 외과의 진단 :

—머리에 약 4 개의 혹이 있음. 타박상이라고 진단되는데 환자 본인의 진술에 의하면 그중 한 개는 일본의 오끼나와에서, 다른 또 한 개는 서울 남대문에서 주민들이 던진 돌(시속 약 40 키로 였다고 함)에 의하여 생겼으며 다른 두개는 비률빈의 마닐라와 대만의 대북에서 헤리곱터에 올라 탈 때에 《너무나 서둘렀던 탓으로》 출입문과 맹렬한 충돌을 일으킨 결과 생긴 것이라고 함.

—바른 손에 탈골증의 흔적이 있음. 이것은 금포 비행장에 내린 환자의 손을 남조선의 허 정이 《너무나도 황송하고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파도하게 잡아 흔든 후부터 생긴 것이라고 봄.

—치료 방법으로서는 일반 외과 처치 이외에 앞으로 《극동 친선 방문》과 같은 《위험한》 려행을 하지 말 것과 부득이 그러한 모험을 하게되는 경우에는 타박상 또는 골절 현상을 방지할 만반의 《전투 태세》를 갖춘 후 출발할 필요가 있다고 이에 권고함.

3. 이비 인후과의 진단 :

—발음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는 괴상한 병증이 있음. 즉 제국주의라는 단어를 민주주의라고 발음하며 파쑈를 《자유》라고 발음하며 전쟁과 략탈을 《친선》, 《원조》라고 발음하며 《대한 민국》을 《자유 세계의 진렬장》이라고 발음하고 있음.

치료 방법은 혀를 뽑아서 다시 수술하는 이외에 다른 도리가 없다고 진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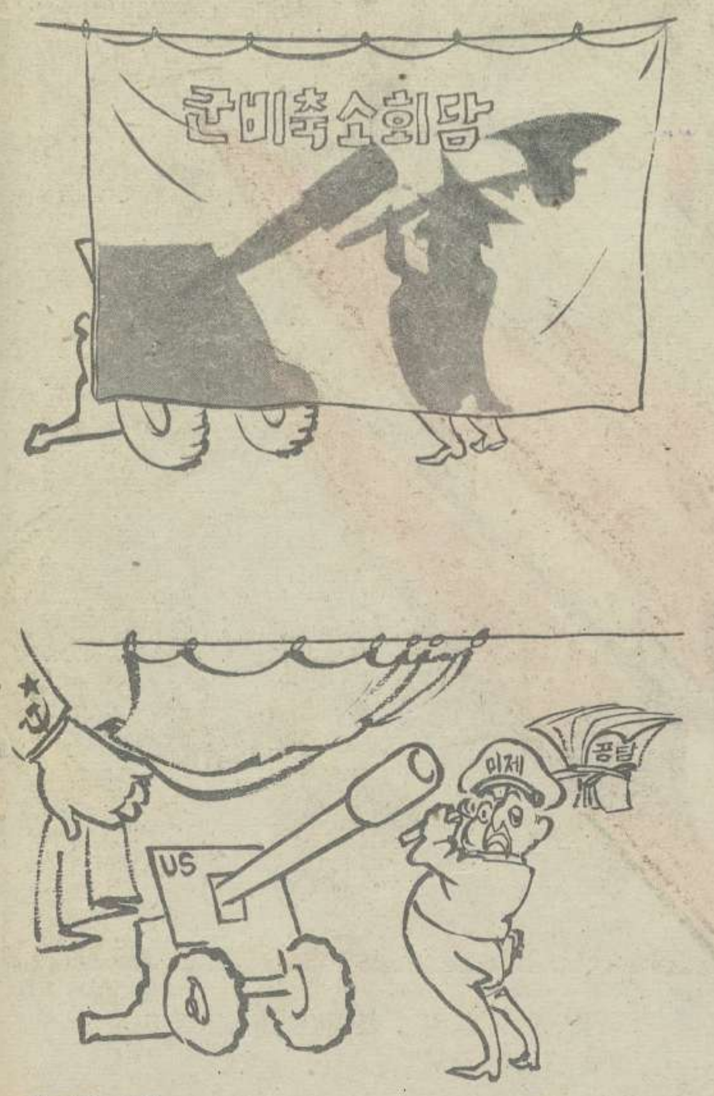
—《극동 친선 방문》 기간에 량쪽 귀의 고막에 파렬증이 생겼음. 파렬구가 확대되기 이전에 인공 고막을 장치할 것.

의학 감정 위원회의 총결론

1. 각과 담당 의사가 제기한 치료 방법은 모두 림시적인 것에 불과함으로 가장 기본적인 치료 방법으로는 현 직무에서 해임시키고 사람들이 없는 무인도 또는 태양계의 다른 별에 이송함으로써 제 명대로 죽게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봄.

—환자의 병증은 타인에 위험한 영향을 주는 극히 악랄하고 괴이한 현상임으로 사후에 환자의 시체를 벗겨서 위생관에 전시함으로써 후대들을 위한 참고로 널리 공개할 것을 권고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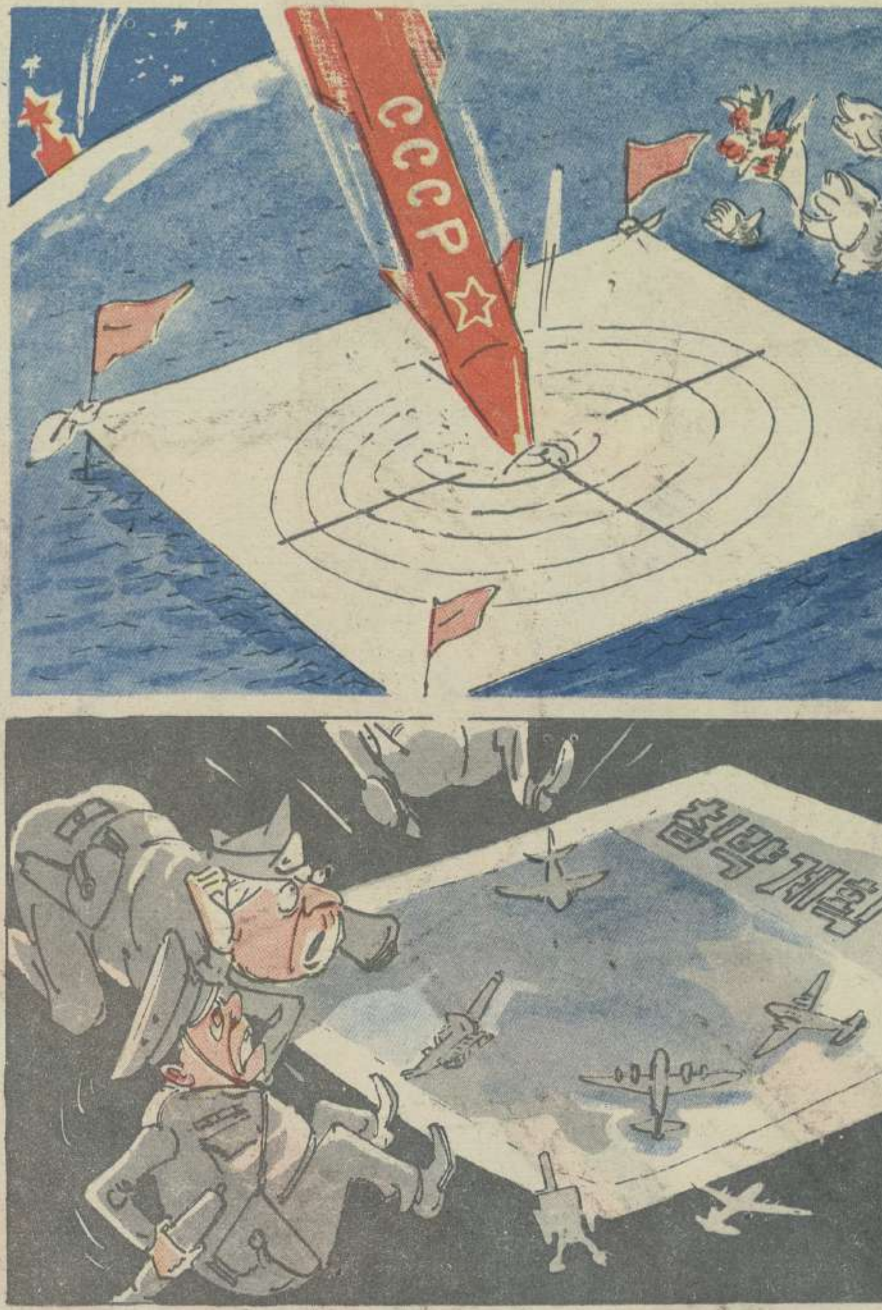
드러났다



홍 종호 그림

백발 백중!

지난 7월 쏘련이 새로운 종류의 강력한 다계단 로케트를 발사한 사실은 인류 지혜의 최고봉을 이루고 있는 쏘베트 과학 기술의 무비의 위력을 다시 한번 시위하였으며 미제를 두목으로 하는 제국주의 호전광들에게 또 하나의 치명적 타격을 주었다.



송 시엽 그림

본 잡지의 애독자들은 체신부(우편국)들에서 8월 중에 진행되는 4.4 분기 예약 사업에 빠짐없이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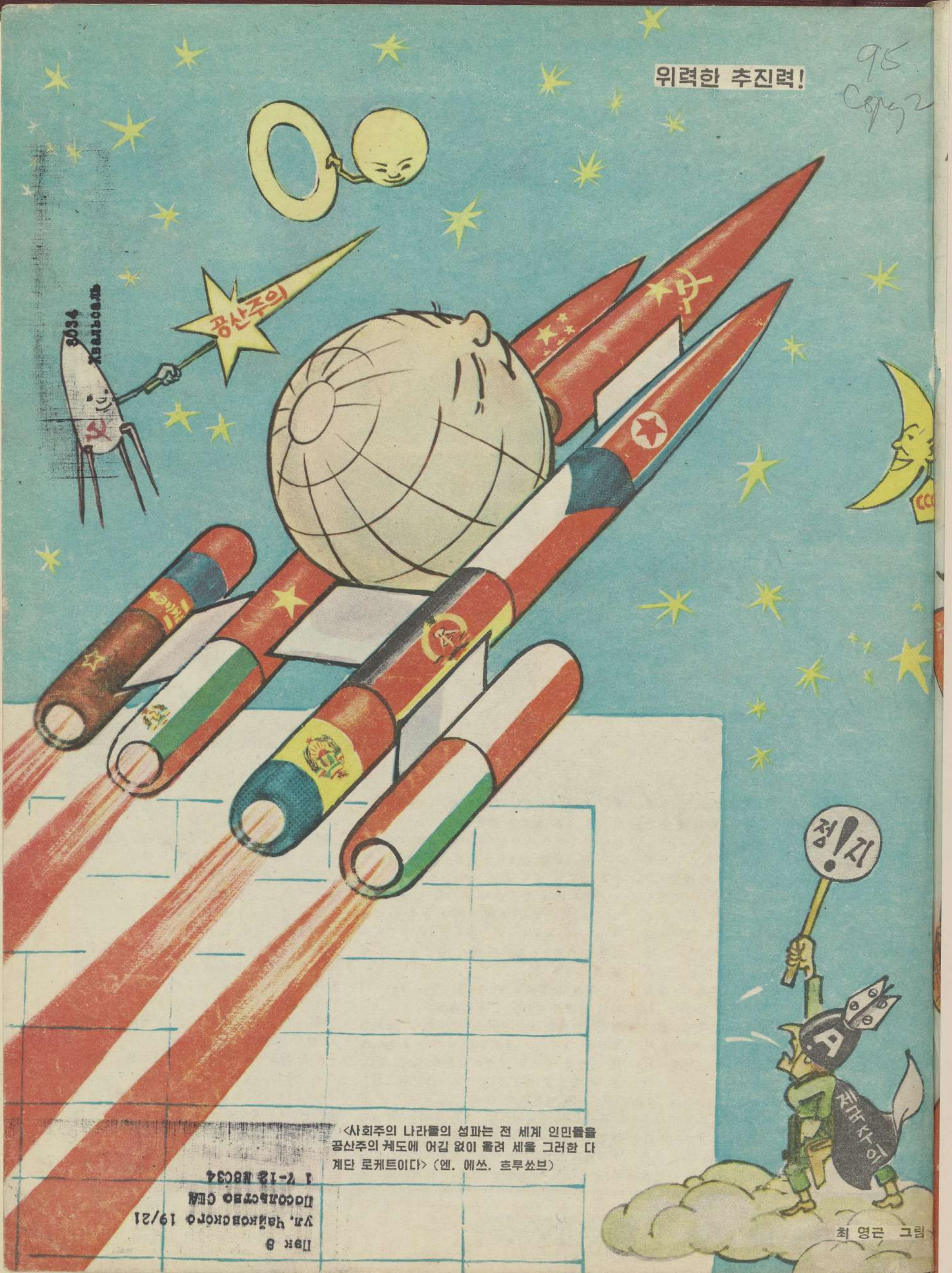
편집 위원회

발행소 국립 미술 출판사

인쇄소 로동 신문 출판 인쇄소

ㄱ—15717

발행 1960. 7. 20 (값 40전)



<사회주의 나라들의 성과는 전 세계 인민들을 공산주의 궤도에 어김 없이 올려 세울 그러한 다계단 로케트이다> (엔. 에쓰. 흐루쑈브)

최 영근 그림